

KCC, 중국서 유기실리콘 “반덤핑”

DMCS가 반덤핑 관세 25% 부과받아 ... KCC는 점유율 낮아 대응안해

KCC의 유기 실리콘(Silicone) 중간물질이 중국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KCC(금강고려화학)가 수출하는 화학물질 Dimethyl Cyclosiloxane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5월27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및 타이기업들이 수출하는 Dimethyl Cyclosiloxane에 대해 “가격 덤핑으로 중국 내수산업에 손해를 줬다”면서 “5월28일부터 5년 간 5.4-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의 2개 기업이 KCC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함으로써 2008년 5월부터 조사받아왔다”며 “그러나 KCC는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내 시장 점유율도 낮아 수출을 계속할 의향이 없어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Dimethyl Cyclosiloxane은 섬유 및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유기 실리콘의 중간재로 중국시장은 현지기업의 점유율이 72%에 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8>